

광주, 온누리상품권 회수율 109% '전국 최고'

최근 5년 사용액 3574억원 ... 판매 금액보다 307억원 더 소비 전남은 회수율 88.4%에 그쳐 ... 지역 소비 유출 막기 대책 시급

최근 5년 동안 광주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574억원 상당으로, 이 지역에서 판매된 금액보다 307억원(109%) 더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88.4%에 그쳐 지역 소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 등 중소기업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6년~2020년 9월) 지역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광주 109.4%·전남 88.4%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이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이 총 3267억4000만원 판매됐는데, 이 지역에서 실제 소비된 금액은 306억8000만원 많은 3574억2000만원이었다.

광주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대구(110.8%)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산(103.2%), 충남(100.9%) 등도 상품권 판매액보다 회수금액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들 4개 지역을 제외한 13곳은 지역 회수액이 판매분에 못 미쳤다.

상품권 회수율 100%를 밑돈 곳은 제주(94%), 전북(92.7%), 인천(91%), 서울(90.5%), 충북(89.8%), 전남(88.4%), 강원(84.5%), 대전(79.1%), 경남(74.2%), 경북(68.1%), 울산(66.7%), 경기(66.1%), 세종(40.2%)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2950억5000만원을 팔았지만 지역에서 쓰인 금액은 2607억7000만원으로, 회수율 90%를 넘지 못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중소기업보다 대도시에서 사용되는 비중과 금액이 많았다. 광주·전남 역시 회수율 격차가 해마다 벌어졌다.

광주지역 회수율은 2016년 118%(판매 375억·회수 445억), 2017년 122%(판매 467억·회수 570억), 2018년 117%(판매 681억·회수 800억), 2019년 120%(판매 717억·회수 857억) 등 매년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9월 기준 광주 판매액은 1026억6000만원으로, 회수금액은 88% 수준인 903억1000만원이었다.

전남은 지난 2016년(108%)과 2017년

(100%) 회수율 100%를 충족했지만 2018년 92%(판매 575억·회수 529억), 2019년 97%(판매 585억·회수 566억) 등 상품권이 판매된 만큼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았다.

올해 9월까지 판매된 997억원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670억원이 소비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도입될 때 판매액이 10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판매 규모는 1조6852억원으로 162배 넘게 늘었다.

신정훈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내 소득 역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이 지난 2016년 10%에서 2020년 40%로 확대됐다.

공공기관이 경장경비의 1.5% 상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 정부평가 할당 점수를 주고 있으나 지역화폐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68억원(53개 지자체)이었던 지역

■온누리상품권 판매·회수현황 (2016~2020년9월 기준·단위:억원)

	판매액	회수액	회수율
대구	1조123	1조1213	110.8%
광주	3267	3574	109.4%
부산	1조2277	1조2667	103.2%
충남	1441	1454	100.9%
제주	763	718	94.0%
전북	3997	3707	92.7%
인천	3430	3122	91.0%
서울	16639	15060	90.5%
충북	1064	956	89.8%
전남	2951	2608	88.4%
강원	1201	1015	84.0%
대전	2117	1675	79.1%
경남	6200	4599	74.2%
경북	5688	3873	68.1%
울산	3832	2557	66.7%
경기	8197	5419	66.1%
세종	313	126	40.2%
전라	851	883	103.7%
모바일	944	701	74.2%
계	8조5294	7조5925	89.0%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정훈 의원실〉

역회폐 발행 규모는 올해 9조6288억원(229곳)으로 82배 가량 성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1.21 (-19.27)	↓ 금리(국고채 3년) 0.877 (-0.024)
↓ 코스닥 844.44 (-17.04)	↓ 환율(USD) 1143.20 (-3.70)

효성 3개사, 2020 ESG 평가서 'A+' 최고 등급... 지배구조 대폭 개선 평가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 등 효성그룹 계열사 3곳이 A+ 등급을 받았다.

조사대상 기업 760개사 중 16개사가 A+ 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에서 S 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A+ 등급이 사실상 최고 등급이다.

이밖에 ㈜효성과 효성증권(주) 역시 A 등급을 획득해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받은 첫 평가에서 모두 A 등급 이상을 받았다.

지주사 체제 전환 등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로, 전사적인 환경경영 관리와 준법경영체계 강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소통 노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효성그룹 계열사들은 환경 부문에서 그린경영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 EHS(환경안전보건) 위원회를 신설,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거래법, 반부패, 보안 등 준법과 인권경영을 위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점과 사업보고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배당 및 이사회 정보 등을 공개하는 소통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앞서 조현준 회장은 2018년 효성 지주회사 출범 당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 후 VOC 경영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투명하고 정확한 소통, 친환경 경영을 강조해왔다.

한편 효성은 ESG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228만2600원

광주, 전달보다 소폭 상승

지난달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달보다 소폭 오른 3.3㎡당 1228만2600원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광주지역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9월 말 기준 372만2000원이었다. 이는 전달 369만4000원보다 2만8000원(0.76% ↑) 상승한 것이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달보다 9만2400원이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600원 오른데 그친 것이다.

반면 전남지역은 전달 ㎡당 268만3000원으로 전달 268만9000원보다 6000원(0.23% ↓)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248만1000원)보다는 20만2000원(8.14% ↑) 상승했다. 3.3㎡당 가격으로 보면 지난달 분양가는 885만3900원으로 전달보다 1만9800원 떨어지고, 전년보다는 66만6600원 오른 수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캠페인



송종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이 15일 대면 노동자에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송 행장은 다음 주자로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광주은행 제공>

2021년 제2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고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합청년몰 조성 및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화재예방 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주차환경개선 등 5가지다.

우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하며,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도 전통시장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화재예방시설과 노후전선교체 사업 등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해당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6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